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5면)

“탄천의 아름다운 변화, 지속적 관리로 완성해야”



강정선 송파구의원 (비례대표)

강정선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5분자 유발언을 통해 탄천둘레길 이팝나무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예방과 상시점검 중심의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강정선 의원은 “그늘이 부족한 탄천둘레길 3.3km 구간에 이팝나무 400주를 추가로 심어 기존 구간 포함 총 4.5km 이팝나무길을 조성하고, 나무 아래 라일락·수국

등을 심고, 제방에는 물억새·수크령 등을 식재했다”며 “아름다운 나무를 심었다고 곧바로 명소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예산을 확보하고 공간을 조성한 노력에 꾸준한 관리가 더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면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와 예초작업, 병해충 예방, 쓰레기 정화와 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사후 대응 중심

에서 벗어나 예방과 상시점검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선 의원은 탄천 이팝나무길이 당초 수립된 순찰 계획과 실제 이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 교란식물의 분포지역을 파악해 개화와 결실 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할 것, 단순한 작업 횟수가 아니라 교란식물 제거 면적과 재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관리성과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